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협조적 행위규칙*

조 필 규**

요약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론이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질서가 개체선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시장질서하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거래가 익명적 다수에 의해서 거래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자생적 시장과정 속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것이 시장질서가 반드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특정 제도적 조건하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은 생존할 수 있고, 이는 시장거래가 효율적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 조건으로서의 적절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역시 여러 제도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장질서는 그 자체로 자생적이기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분류 : B030102

핵심 주제어 : 하이에크, 문화진화, 협조적 행위규칙

I. 서 론

하이에크(F. A. Hayek)는 사회적 영역과 자연적 영역 모두에서 선택원리(selection principle)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두 영역에서의 진화에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하이에크는 문화진화(cultural evolution)가 다윈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문화진화에서는 집단선별(group selection)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이다

* 본 연구는 2011년 한밭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e-mail: jopk@hanbat.ac.kr

(Hayek, 1988, pp.23-25). 즉 자연적 진화에서는 선별 메커니즘(selection mechanism)이 개별 유기체에 대해서 작동하는 반면에 문화진화에서는 집단의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개체선별과 집단선별이라는 선별 단위의 문제는 진화이론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적인 다윈주의에 따르면, 생물학적 진화에서 선별의 단위는 집단이 아닌 개별 유기체이다. 그러나 최근의 생물학에서도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사회적 영역에서도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odgson, 1996; Henrich, 2004).

그러나 많은 하이에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이 작동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자생적 사회질서(spontaneous social order)에 대한 자신의 개인주의적 설명과 양립하기 힘들다.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따르면, 행위규칙의 선별과 전수 과정은 개별 행위주체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질서가 집단선별의 결과라면, 어떠한 행위규칙이 선별될 것인가는 더 이상 개별 행위주체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진화에서 선별 단위에 대한 문제이다. 비록 하이에크 자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집단선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의 문화진화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검토한다. 만일 하이에크의 주장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문화진화에 대한 그의 주장이 반드시 방법론상으로 모순을 빚고 있다고 간주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화진화가 개체선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즉 개별 행위주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별된 행위규칙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최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화게임이론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개체선별의 결과로 이타적 혹은 협조적 전략이 생존할 수 있다. 이는 시장질서하에서 협조적 행위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면, 개체선별에 의한 문화진화가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생적 사회질서를 낳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 대한 또 다른 쟁점, 즉 협조적 행위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시장질서하에서 과연 충족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협조적 행위규칙 선별에 필요한 조건이 시장질서하에서 충족될 수 있고, 문화진화가 개체선별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시장질서의 효율성에 대한 하이에크의 설명은 이론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하이에크가 봉착한 이론적 딜레마를 정리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행위규칙은 개인들의 혁신과 모방에 기초해야 하지만 그렇게 선별된 행위규칙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편익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배치되는 집단선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Ⅲ장은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서 선별 단위는 집단 자체이기보다는 집단에서 준수되고 있는 행위규칙이다. 이 점은 하이에크 자신의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문화진화에서 개체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어서 제Ⅳ장은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체선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그러한 조건이 자생적 시장질서하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Ⅴ장에서는 시장질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위규칙과 제도설계의 공진화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은 전체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Ⅱ. 자생적 질서와 하이에크의 딜레마

하이에크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사회라는 전체는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며,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과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사회 현상은 개별 행위들과 그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양자의 결합된,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진화 과정에서 행위규칙의 선별은 개별 행위주체들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전통적인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실험을 하고, 이것이 그 사회의 다른 행위방식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 집단의 점점 더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모방되고 전파됨에 따라 그 집단의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다 (Hayek, 1979, p.161). 이처럼 하이에크는 개별 혁신가에 의한 변이와 개인들의 모방에¹⁾ 의한 행위규칙의 선별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이에크가 문화진화를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 집단이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Hayek, 1967, p.71), 개인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별 행위주체들만이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은 각 개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환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질서는 구성원들의 일반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정의로운 행위규칙(rules of just conduct)으로서의 사적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는 시장질서가 효율적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Hayek, 1973a, p.29). 그러한 행위규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설계되지 않은 자생적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데 행위규칙이 문화진화의 산물이라면, 이는 개별 행위주체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의 결과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이에크도 인정하듯이, 개인 차원의 모방과 학습에 의해서 선별되어 진화한 규칙이 그 자체로서 항상 편익적인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주어진 개별 행위규칙 체계가 행위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개인들이 행위하는 그 환경에 의존(Hayek, 1967, p.67)”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는 해로울 수 있는 새로운 개별 행위규칙이 다른

1) 하이에크에 의하면 이러한 학습을 통한 문화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모방이다.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인간의 행위규칙들은 … 전통, 교육, 모방에 의해서 전수되었다(Hayek, 1988, p.12).”

환경에서는 편익적일 수 있다(Hayek, 1967, p.71).” 즉 동일한 행위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행위하는 환경에 따라 상이한 질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된 규칙을 개인들이 준수함으로써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질서가 그 자체로서 편익적 성격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정의로운 행위규칙이 어떻게 개별 행위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선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대신 그는 자생적 사회질서가 사회적으로 편익적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단선별에 의존한다. 즉 문화진화에서는 선별 메커니즘이 개체 차원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은 하이에크 자신의 개인주의적 관점과 모순을 빚는다는 것이다.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집단이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규칙이 선별되었다는 주장은 선별이 집단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행위규칙의 선별 메커니즘이 개별적인 혁신과 모방에 기초하여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정을 통한 자생적 질서의 출현이라는 개인주의적 설명과는 양립할 수 없다.

Vanberg(1986)는 이러한 집단선별 주장은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설명방식이라고 비판한다. 기능주의적 설명에 따르면 사회체제의 유지에 대한 공헌이 사회 패턴 혹은 제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떤 사회 체제 혹은 제도가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집단을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에크는 다분히 기능주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에크는 문화진화를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아마 아주 우연한 이유 때문에 채택된 관행으로부터 그 집단이 차별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별 과정의 결과(Hayek, 1979, p.155)”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하이에크는 집단선별을 통해서 문화적 규칙의 유리한 사회적 효과를 그 규칙의 출현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히 기능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이며, 이처럼 선별이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에서, 즉 집단을 단위로 해서 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은 또한 그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는 배치되는 주장인 것이다.

하이에크가 봉착하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이다. 자신의 개인주의적 관

점에 따르면, 행위규칙의 선별이라는 문화진화 과정은 개체선별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러한 개체선별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생적 사회질서가 사회적으로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반면에 자생적 사회질서의 효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는 집단선별의 의존하지만 이는 개인주의적 견해와 모순을 빚는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딜레마에는 두 가지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선별 단위의 문제, 즉 문화진화에서 선별 메커니즘이 개인적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혹은 집단적 수준에서 작동하는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진화에서 협조적 행위의 진화 가능성, 즉 집단에 편익적인 결과를 낳는 협조적 전략이 선별 메커니즘을 통과하여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이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만일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구성원들의 협조적 행위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이는 하이에크 이론 체계에 결정적인 모순을 낳는다. 반면에 집단선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문화진화에서 협조적 행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하이에크의 시장 질서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문화진화에서의 선별단위: 개체선별과 집단선별

하이에크가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해 집단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위규칙이 선별된다고 주장한 것은 개별 행위주체의 차원에서 선별된 행위규칙이 사회적 편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능주의적이라는 문제와 함께 하이에크 자신의 개인주의적 설명방식과 모순을 빚는다.

반면 Hodgson(1996)은 하이에크의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최근의 생물학에서도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진화에서 집단선별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영역에서는 더욱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집단선별 과정에서 무임승차자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

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오류는 그가 집단선별을 주장함으로써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모순을 빚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진화에서 개별 구성원들 수준 이상에서 작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별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문화진화는 개체선별을 포함한 다층적(multilevel) 선별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에크는 시장질서의 효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단선별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에게 집단선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그는 단지 문화진화에서는 집단선별이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주장에는, 예컨대 무임승차자의 제어나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 속도와 같은, 집단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요한 조건이 시장질서하에서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방법론적 개인주의와의 모순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집단선별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이 작동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그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다(Sugden, 1993, p.400).

만일 개체선별과 집단선별이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선별 단위의 문제는 하이에크의 논의에서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집단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위규칙이 선별된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선별된 행위규칙이 그것을 따르는 개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개인주의적 설명에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진화에서 집단선별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체선별의 결과와 사실상 동일할 수 있고, 따라서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별 단위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집단 간 경쟁에서는 협조적 혹은 이타적 행위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생존에 더 유리한 반면에 집단 내 경쟁에서는 이기적 행위자가 이타적 행위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낳는 행위규칙이 그것을 따르는 개인들에게도 항상 이익이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행위규칙으로부터 이탈할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규칙이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이롭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규칙을 이탈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행위규칙이 선별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이다. 이는 특정 규칙을 채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집단 내에서는 협조적 행위자가 무임승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다(Vanberg, 1986, p.187).

따라서 집단선별과 개체선별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선별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두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 속도에 의존한다. 만일 개체선별이 집단선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행위규칙의 선별은 집단의 효율성보다는 개인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집단선별에 의한 자생적 질서의 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체선별의 방향과 집단선별의 방향이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적어도 집단선별의 속도가 개체선별보다 빠르게 작동하여 집단선별의 결과가 개체선별의 결과를 압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최정규, 2009a, p.352).

그러나 게임이론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이하 PD 게임)과 같은 협조게임(cooperation game)이나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개인적 관점에서의 최적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비록 한 집단 내에 이타적 행위자가 많을수록 그 집단의 성과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집단 내에서 이타적 행위자에 비해 이기적 행위자의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들은 무임승차의 유인을 갖게 되고, 그 집단 내에서 이타적 행위자의 전략이 지배적일 수 없다. 즉 개체선별과 집단선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그 속도에 있어서도, Wade(1978)에 따르면, 개체선별이 더 빠르게 작동한다. 집단선별의 결과로 비효율적인 집단이 소멸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각자에게 더 이로운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집단의 행위규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자생적 질서의 출현을 집단선별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모순을 빚을 뿐만 아니라 하이에크 자신의 자생적 질서에 대한 이론 체계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게 된다. 오히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진화에 대한 이론 체계는 개체선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때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은 개별 혁신가의 실험과 모방이라는 개체선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하이에크 자신의 집단선별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화진화론을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선별에서 선별 메커니즘이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해서 작동한다고 할 때 집단은 선별 단위로서 서로 간에 경쟁한다. 그러나 Sugden(1993)에 따르면,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집단 그 자체이기보다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따르고 있는 관습이나 규범 등과 같은 행위규칙이다. 예를 들어 영어라는 언어가 확대되는 과정은 영어를 사용하는 집단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 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다른 언어들 간의 경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진화에서 선별의 단위는 집단 그 자체이기보다는 집단이 따르는 행위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Vromen(1995) 역시 하이에크가 말하는 '집단'이라는 말을 '질서(order)'라는 말로 대체하면, 하이에크의 집단선별에 대한 주장이 반드시 글자 그대로 집단선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에게 '질서와 요소'라는 개념은 '집단과 개인'이라는 개념과 쌍을 이루고 있다(Hayek, 1967, p.66). 즉 하이에크가 말하는 집단은 곧 집단의 질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그 집단 내의 기존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우월한 성과를 내는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대체한다고 할 때, 그 '대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집단의 물리적 소멸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집단의 출현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가능하다(Vromen, 1995). 첫째는 집단 간 구성원들의 이동(between-group migration)에 의해서 기존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체되는 경우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기존 집단이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열등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우월한 성과를 내는 집단의 행위규칙을 모방하는 경우, 즉 집단 간 모방(between-group migration)의 경우이다. 세

번째는 동일한 집단의 개인들이 서로를 모방하는 집단 내 모방(within-group imitation)의 경우이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 모두 해당 집단의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는 결과를 수반한다.

집단의 구성원들 자체가 변하는 첫 번째의 경우와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집단의 물리적인 대체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원들에 변화는 없더라도, 그 집단 구성원들이 따르는 행위규칙의 변화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질서의 출현은 기존 집단이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가 웨일즈(Walse)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웨일즈라는 지리적 집단은 영어 문화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웨일즈 주민들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실체로서의 웨일즈의 질서는 영어 문화권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Sugden, 1993, p.401). 이처럼 하이에크의 집단의 대체를 새로운 질서의 대체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관습에 따른 질서의 변화를 집단선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오류일 수 있다.²⁾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서 생존 혹은 선별되는 것은 개인 혹은 집단 그 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들이 준수하고 있는 행위 규칙이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변화가 없더라도 그들이 기존의 행위 규칙을 변화시킨다면, 이는 그 집단 내에 새로운 질서가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말하는, 기존 집단이 새로운 집단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문화진화의 과정에서 우월한 성과를 내는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이처럼 해석하는 경우, 선별 메커니즘은 여전히 개별 행위자들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이에크의 문화진화에서 선별의 단위는 개별 주체들이 따르고 있는

2) 이러한 해석은 Nelson and Winter(1982)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의 진화적 기업 이론에서 선별의 단위는 루틴(routine)이다. 생물학에서 개별 유기체가 유전자의 담지자에 불과하듯이 개별 기업은 루틴의 담지자이다. 기업이 루틴을 혁신하는 경우 전체 산업에서 변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루틴의 시장 점유율이다. 어떤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때 그 기업이 기존 기업들과 동일한 루틴을 갖고 있다면, 이는 기존 루틴의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산업 전체에서 개별 기업들의 구성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기업의 루틴에서 변화가 없다면, 이는 산업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행위규칙이라면, 행위규칙의 출현과 유지, 또는 대체는 결국 개별 행위주체들이 해당 행위규칙을 따르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선별에 대한 하이에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는 오히려 개체선별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선별의 결과가 집단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진화에서 개체선별의 결과로 사회적으로도 편익적인 행위규칙이 선별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협조적 행위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선별 단위의 문제와는 별개로 개체선별의 과정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개체선별의 결과로 협조적 행위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들이 하이에크의 시장질서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시장질서하 협조적 행위규칙의 자생적 선별 가능성

하이에크에 따르면, 자생적 질서는 그 질서에 속한 개인들이 일련의 행위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는 어느 누구도 모든 정보를 완벽히 보유할 수 없고, 지식이 분산된 거대사회(Great society)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무지(constitutional ignorance)에 대한 필연적 대응이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소규모 대면 사회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그 목적들 간에 위계를 정하는 것이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적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한 개별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³⁾ 거대사회에서 개별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어려워진

3) “거대사회에서 인간 행동들의 전체 질서(행동질서)의 기초가 되는 모든 특수한 사실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하다(Hayek, 1976, p.8).”

다. 그 대신에 복잡한 사회의 추상적 측면들과 관련된 합의의 가능성은 점차 증대한다. 이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려진 특정한 사실들에 대한 지식은 감소하는 반면에 그들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복잡한 사회현상들의 추상적인 측면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의 결과이다(Hayek, 1976, pp.12-13).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다양한 구체적인 목적들 간에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지 개별 행동들에서 공통적인 추상적 측면만을 규제할 수 있는 행위규칙에 대한 합의만이 가능할 뿐이다. 왜냐하면 분쟁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특정 목적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지만, 그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합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행위규칙이란 공통의 목적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기대에 기초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그러한 추상적인 행위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개인들의 기대가 서로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 행위규칙의 준수를 통해서 개별 행위들이 조정된 결과로서 출현하는 것이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생적 질서인 것이다.

이처럼 거대사회에서 추상적 행위규칙에 대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합의가 자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출현할 수 있으며, 합의된 행위규칙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대한 가설이 이에 대한 한 가지 유력한 설명일 수 있다.

Trivers(1971)에 따르면, 개인들은 미래에 타인의 호혜적 행동을 기대하고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이기적 행동의 결과일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이기적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반복적인 PD 게임의 상황을 가정하면, 이번 게임에서의 이익을 위해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이후 게임으로부터 그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일정한 확률로 둘 사이에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면, 이 경우 이후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각 개인들은 협조적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최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협조 전략의 대표적인 경우로 TFT(tit-for-tat) 전략을 들 수 있다. Axelrod(1990)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협조보다는 상대방의 전략 여하에 따라 협조와 배신을 선택하는 TFT 전략과 같은 조건부 협조 전략이 더 높은 보수를 가져다준다. 이는 게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게임의 상대방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일정 확률 이상으로 존재한다면, 협조적 전략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이 일정 확률 이상으로 반복됨에 따라 자신의 배신행위가 이후 게임에서 상대방의 보복에 의해 응징될 수 있다면, 반복적인 PD 게임 상황에서 협조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인들에 의한 협조적 균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때의 협조는 무조건적인 협조가 아니라 TFT 전략과 같은 조건부 협조이다.

이러한 협조적 균형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게임이 일정 확률 이상으로 반복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PD 게임에서 협조적 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자신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후 게임에서 보복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라면, 협조적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보복 행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게임이 반복될 확률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게임의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보복의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조적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2인 게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게임이 반복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반복 게임 상황에서 협조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 하이에크가 말하는 거대사회에서 충족될 수 있는 가하는 점이다.

하이에크에게 자생적 사회질서의 효율성은 곧 시장질서의 우월성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분권적 시장경제가 우월한 것은 의사결정이 개별 경제주체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대 사회의 복잡한 현상에 직면한 개인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구조적 무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거대사회에서 개별 의사결정이 각자에게 위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장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완벽히 보유할 수 없을 만큼 시장 거래가 다수의 익명적 개인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구나 Vanberg(1986)가 지적하는 것처럼, 시장 거래에서 익명적 거래자들의 이동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PD 게임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다시 만날 확률이 지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장 거래의 익명성 때문에 보복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상호적 이타주의 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조적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D 게임에서 게임의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역시 협조적 행위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Grafen, 1984; Bergstrom, 2002). 즉 게임의 참여자가 상대방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고, 협조자는 협조자와, 그리고 배신자는 배신자와 게임을 벌이는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유유상종(assortative interaction)은 국지화를 통한 집단의 분절화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 다자간 PD 게임에서 모든 사람은 배신자보다는 협조자와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집단이 서로 고립되어 존재하여 집단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각 경기자들이 서로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면, 협조자들은 배신자들이 자신들 집단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협조자와 배신자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분리되어 존재할 것이며, 그 결과 협조자들로 구성된 집단이 배신자들로 구성된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사회에서 시장 거래가 익명의 다수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래의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 경제에서 거래집단이 분절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집단 간 이동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식별과 유유상종에 의해서 협조적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Bergstrom(2002)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각 개인은 협조자로 보이는 상대방과 만나기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모든 사람들이 협조자와 경기하기를 원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협조자인 참여자가 실제 협조자를 만날 확률이 배신자를 만날 확률보다 높게 된다. 예를 들어 공공재 게임에서 참여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공재에의 기여율이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

려줌으로써 상호간에 협조적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유형을 거래 상대방에 알려줌으로써 상호간에 유형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언제나 기회주의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식별된 유형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신호발송으로서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은 단지 '값싼 수다(cheap talk)'에 불과할 뿐, 여전히 협조적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최정규, 2009b, p.142).

이러한 점들로 볼 때, 하이에크가 말하는 거대사회, 즉 익명성과 이동가능성이 높은 다자간 거래라는 시장 경제의 특성상 협조적 행위규칙이 개체 선별의 결과로서의 선별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생적 시장질서가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V. 시장질서와 사회제도의 공진화

그렇다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면, 반복적인 협조게임에서 협조적 균형은 출현할 수 없을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장 거래에서 참여자들의 익명성과 높은 이동가능성은 보복의 어려움 때문에 조건부 협조에 의한 협조적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시장질서가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거나 혹은 시장질서하에서 협조적 행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가 갖는 취약성에 대한 논거들은 역으로 시장질서하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를 있음을 반증한다.

인간들의 사회적 질서가 자연적 질서와 다른 점은 행위의 가능한 범위를 정의하는 사회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시장 역시 그러한 사회제도들 중 하나이다. 시장은, 예컨대 국가와 같은, 다른 사회제도 내에 배태되어(embedded) 존재하는 것이지, 제도적 진공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은 주체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들로 구성된 특정 제도들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상호작용 체계이다(Vanberg, 1986, p.75). 시장은 그

자체로 항상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며, 시장질서가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시장을 둘러싼 다른 사회제도와 규칙의 성격에 달려 있다.

하이에크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시장경쟁은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제약될(Hayek, 1973b, p.125)”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이에크의 시장 및 경쟁의 효율성에 대한 주장은 그 특정 성격과 무관하게 경쟁 그 자체, 혹은 모든 자생적 질서 일반에 대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쟁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경쟁과정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 점에서,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론은 ‘조건적 진화(conditional evolution)’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Vanberg, 1994). 시장을 제약하는 적절한 규칙으로서의 조건들은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며, 이는 일종의 ‘헌법적 규칙(constitutional rule)’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의 경쟁은 시장을 제약하는 일반적 행위규칙으로서의 헌법에 의해서 제약되는, 소위 ‘헌법적으로 제약된 경쟁(constitutionally constrained competition)’인 것이다(Buchanan and Vanberg, 2002).

이렇듯 시장질서가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시장을 제약하는 여타의 다른 사회제도들의 성격에 달려 있다면, 하이에크가 자유주의적 입법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하이에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규칙과 제도가 진화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면, 입법기구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적 제도 외에도 많은 비공식적 제도들 역시 시장질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는 편익적 시장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혹은 문화적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많은 실험경제학 연구들은 공공재 게임과 같은 익명적 다수로 이루어진 게임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Fehr and Gächter, 2000). 이들 연구에 의해서 확인되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개인들에게 이기심이 중요한 행위동기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모든 행위가 이기적 동기를 갖는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개인들은 공정성(fairness)이나 상호성(reciprocity) 등에 의해서도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다(최정규, 2009b).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배신자나 무임승차자들을 처벌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이는 사회 내에서 규범을 유지시키고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가 출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공동체적 규율을 유지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건들이 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의 완전정보라는 가정하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최적의 효율성을 낳는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예컨대 공공재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를 낳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한 사회의 특정 제도로서의 시장은 효율성 면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때 개인들이 공정성과 상호성 등과 같은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other-regarding preference)'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결과적인 시장질서의 효율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시장에서의 계약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술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포괄적일 수 없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장계약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불완전계약에 기인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유인설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조직문화와 같은 문화적 관습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조직을 포함하여 그 집단 내에 문화적 관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동체에 대해서 협조적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는 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관습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많은 인류학적 연구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인간사회에서 이타적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소득수준의 형평성 정도에 따라 그 구성원들의 이타적 혹은 협조적 행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Bowles et al., 2003).

더구나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화전수가 순응적(conformist) 성격을 가질수록 개인들이공동체의 행위규범에서 이탈하기 보다는 협조적 행위를 보여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Boyd and Richerson, 1985). 개인들이 매순간 가장 효과적인 대안들을 탐색하여 결정하거나 새로운 관행을 실험

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오히려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지배적인 관행을 모방하는 것이 그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 경우 순응적 문화전수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은 높아지며, 순응적 문화전수 메커니즘은 개인들로 하여금 공동체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무임승차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Hodgson, 1996).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경험은 개인들의 행위에 어떤 ‘현저함(prominence)’을 낳고, 이는 협조적 행위규칙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gden, 1989).

이처럼 시장질서가 협조적 행위규칙을 선별하기보다는 역으로 시장질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면,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러한 문화적 조건들이 상당부분 자생적으로 진화해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제도적 조건들이 어떠한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도설계가 반드시 하이에크의 자생적 문화진화와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하이에크 역시 의도적인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시장경쟁을 가능한 효과적이고 편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법률 체계를 사용하는 정책이 필요(Hayek, 1947, p.110)”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그 자체로 편익적 작동을 보장하는 규칙을 생성, 유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기구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는 구성주의는 사전적으로 의도된 결과를 지향하기 위해서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시장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지, “모든 사람들이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을 상술하는 일반적 규칙이라는 형태로 정해질 수 있는 일반적 규제(Hayek, 1960, p.224)”는 구성주의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원리와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Hayek, 1973a, p.51).

하이에크가 말하는 문화진화 과정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 개인들이 자유롭게 시도하고 실험한 새로운 해법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를 통해 적절한 대안이 발견되고 선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행위규칙으로서의 일반적 규제는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발견적 절차로서의 경쟁이라는 시장의 동태적 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시장에서 적절한 대안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진화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과 제도가 선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진화 과정은 행위주체들의 자유로운 시행착오 학습과 경쟁적 선별 메커니즘의 작동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진화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위규칙 선별에 유리한 조건들을 창출하려는 시도와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수단을 통해서 진화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가 경쟁적 진화 과정을 억제하고 그 자생적 결과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에 해당되는 반면 전자, 즉 규칙을 통해서 진화 과정을 제약하는 것은 진화 과정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화의 편익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수 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실험될 수 있는 것처럼 문화진화 과정에서도 개인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실험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규칙이나 관행에 대한 실험이 포함된다. 조직 내 규칙이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 규칙 역시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설계될 수 있다. 이것이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생적 질서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규칙 체계가 그 기원에서 있어서도 반드시 자생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도 인정하듯이, “결과적인 질서의 자생적 특성은 그것이 의존하는 규칙의 자생적 기원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리고 자생적으로 묘사되어야만 하는 질서가 전적으로 의도적 설계의 결과인 규칙에 의존하는 것도 가능하다(Hayek, 1973a, p.45).” 그렇다면 시장 경쟁의 편익적 작동을 돕는 제도적 조건이 어떠한지를 상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건의 설계는 가능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제도설계를 통해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결과적인 전체 시장질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생적 진화 과정으로서의 시장 과정이 의도적인 제도 설계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오히려 상호 필연적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편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화진화의 과정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하도록 진화 과정을 제약할 수 있는 규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는 인간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안내될 수도 없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항상 낳는 것도 아니(Hayek, 1988, p.74)”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이 진화 과정이 바람직스러운 성격을 갖도록 유지 혹은 보장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통해서 제약하고, 적절한 제도 개혁에 의해서 시장의 일반적인 작동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며, 시장을 둘러싼 다른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들과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시장질서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협조적 행위규칙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무임승차 행위를 제어하고 공동체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자생적으로 진화한 관습과 사회적 관행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작동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설계의 노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노력이 하이에크의 자생적 문화진화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설계의 가능성이 고려될 때, 자생적 시장질서와 문화진화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하이에크 자신의 집단선별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개체선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문화진화가 개체선별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과 그 결과가 효율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시장과정이 효율적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될 수 있어야 하지만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를 개체선별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시장의 익명성과 이동가능성으로 볼 때 시장과정을 통해 협조적 행위규칙이 선별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오히려 시장 외부의 또 다른 사회문화적 선별 메커니즘에 의해서 협조적 행위규칙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도적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무임승차를 제어하는 자발적인 배신자 처벌 메커니즘이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순응적 문화전수 메커니즘 등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은 시장을 포함한 다른 사회제도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자생적으로 진화한다. 예컨대 조직문화나 공동체 관습 등에 의해서 그 사회의 문화전수 메커니즘은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역시 공동체에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이며, 더구나 한 사회에서 어떠한 행위규칙이 선별될 것인가는 추상적 의미로서의 시장 일반이 아닌 그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시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구성원들의 협조적 행위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시장으로의 통합 정도가 클수록 협조적 행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Henrich et al.(2005)의 연구결과는 시장과 협조적 행위는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반대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시장참여자들의 협조적 성향은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하이에크의 문화진화 과정에서 제도설계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규칙이 선별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의 편익적 작동을 돕는 제도적 조건을 상술할 수만 있다면, 협조적 행위규칙의 선별에 유리한 조건의 설계는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하이에크의 자생적 시장과정과 결코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자생적 시장질서의 행위규칙이 반드시 그 기원에서도 자생적일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의도적인 설계의 결과일 수 있음은 이미 하이에크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어떠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이며, 이때 그 제도는 여전히 발견적 절차로서의 경쟁이 갖는 시장의 동태적 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일 것이다. 현실의 시장경제하에서 협조적 행위규칙을 통해 시장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하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제도적 실험과 시장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장에 적합한 제도가 선별되고, 주어진 제도적 조건 하에서 적절한 행위규칙이 선별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선별된 행위규칙은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제도적 실험을 수반한다. 이처럼 제도와 행위규칙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과적인 시장질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집합적 주체, 예컨대 정부의 새로운 제도설계가 협조적 행위규칙 선별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사회계약적 논의의 접점일 것이다. 헌법적 틀을 포함한 적절한 제도설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하이에크의 문화진화론과 자생적 질서론은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투고 일자: 2013. 10. 9. 심사 및 수정 일자: 2013. 11. 4. 게재 확정 일자: 2013. 11. 22.

◆ 참고문헌 ◆

- 최정규 (2009a), 『게임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 서울: 이음.
- _____ (2009b), “사회적 선호와 제도: 문헌연구,” 『사회경제평론』, 제32호, 133-165.
- Axelrod, R. (1990),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London: Penguin Books.
- Bergstorm, Theodore C. (2002),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Individual and Group S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2, 67-88.
- Bowles, Samuel, Choi, Jung-Kyoo and Astrid Hopfensitz (2003), “The Co-evolution of Individual Behavior and Soci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Vol. 223, No. 2, 135-147.
- Boyd, Robert and Peter J. Richerson (1985), *Culture and the Evolutionary Proce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chanan, James M. and Victor J. Vanberg (2002),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Radical Subjectivism,” *The Review of Austrian*

- Economics*, Vol. 15, 121-129.
- Choi, Jung-Kyoo (2007), "Trembles May Support Cooperation in a Repeated Prisoner's Dilemma Gam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63, No. 3, 384-393.
- Fehr, E. and S. Gächter (2000), "Cooperation and Punishment in Public Goods Experi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980-994.
- Grafen, Alan (1984), "Natural Selection, Group Selection, and Kin Selection," in J.R. Krebs and N.B. Davis(eds.), *Behavioural Ecology*, 62-80.
- Hayek, F.A.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77-91.
- _____ (1946), "The Meaning of Competition,"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92-106.
- _____ (1947), "Free Enterprise and Competition Order,"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107-118.
- _____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67), "Notes on the Evolution of System of Rules of Conduct: The Interplay between Rules of Individual Conduct and the Social Order of Actions,"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6-81.
- _____ (1973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 Rules and Or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73b), "Liberalism," in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9-151.
- _____ (197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79),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I: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1988), *The Fatal Conceit: The Error of Soci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enrich, J. (2004), "Cultural Group Selection, Coevolutionary Process and Large-scale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53, No. 1, 3-35.
- Henrich, J., Boyd, R., Bowles, S., Cramer, C., Fehr, E., Gintis, H., McElreath, R., Alvard, M., Barr, A., Ensminger, J., Henrich, N.S., Hill, K., Gil-White, F., Gurven, M., Marlowe, F.W., Patton, J.Q. and D. Tracer, "Economic Ma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Behavioral Experiments in 15 Small-scale Societi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28, No. 6, 795-855.
- Hodgson, Geoffrey M. (1996), *Economics and Evolution: Bringing Life Back into Economics*,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elson, Richard R. and Sidney G. Winter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ugden, Robert (1986), *The Economics of Rights, Co-operation and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89), "Spontaneous Or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4, 85-97.
- _____ (1993), "Normative Judgements and Spontaneous Order: The Contractarian Element in Hayek's Thought,"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Vol. 4, No. 3, 393-424.
- Trivers, Robert L.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The Review of Quarterly Review of Biology*, Vol. 46, No. 1, 35-57.
- Vanberg, Victor (1986), "Spontaneous Market Order and Social Rules: A Critical Examination of F. A. Hayek's Theory of Cultural Evolution," *Economics and Philosophy*, Vol. 2, 75-100.
- _____ (1994), "Cultural Evolution, Collective Learning, and Constitutional Design," in Resman, David(ed.), *Economic Thought and Political Econom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71-204.

- Vromen, Jack J. (1995), *Economic Evolution: An E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ade, Michael J. (1978), "A Critical Review of the Model of Group Selection,"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Vol. 53, No. 2, 101-114.

Hayek's Spontaneous Order and Cooperative Behavior Rule*

Pil Kyoo Jo**

Abstract

Hayek's theory of cultural evolution should demonstrate that spontaneous social order is the result of the individual selection and the market order can satisfy the condition under which cooperative behavior rules can be selected. However, for the fact that the market transactions are usually carried out by a lot of anonymous persons, the condition is difficult to be satisfied in market order. But it does not mean that market order cannot but be inefficient. There may be particular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operative agents can survive, and it suggests that institution design be necessary for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market transaction can result in benefit order. Market is embedded among many other social institutions, and market order is not spontaneous in itself, bu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with the surrounding social institutions.

KRF Classification: B030102

Key Words: Hayek, cultural evolution, cooperative behavior rul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Hanbat National University, 2011.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e-mail: jopk@hanbat.ac.kr